

생산원가 절감으로 양돈 불황 극복하자



이 송 룩

(용인군 지부장)

무던히도 길고 험난했던 갑자년을 보내며 섭섭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묘한 갈등을 느낀다.

양돈인은 모두가 84년이 '고통스러운 한 해였으리라!'

올해와 같이 불안정했던 양돈 사업을 나는 어떻게 극복하였던가?

나는 72년도에 농촌 소득 증대 지원 사업으로 용인자연농원 양도부에서 실시한 계약 사육농가로 선정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금 없이 양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양돈에 손을 대게 된 동기였다.

오직 농사로 천직으로 알고 살아 온 농민의 자식이요, 농부였던 나는 돼지라는 동물에 대한 복스러움과 호기심에 이끌려, 당시 1~5 마리씩 구정물과 음식 찌꺼기로 기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자연농원 양도부에서 양돈에 대한 지식과 사료지원으로 양돈을 시작하면서부터 10두에서 100두로, 100두에서 1,000두로 점차 사업 규모를 늘려 나갔다.

이 과정 속에는 질병에 의한 막대한 손실, 양돈 불황, 밤을 꼬박 지새우며 치료하는 정성, 남모르는 눈물과 땀, 피나는 노력, 뼈 속까지 스미는 좌절감과 포기... 이를 어찌 글로 대신할 수 있으랴!

그 어려움 속에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한 인내와 지혜로,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좌절하지 않고, 끈기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양돈업이 발전, 기업인들의 흥미있는 사업으로 발탁됨에 따라 도시자금, 기업주들이 양돈 산업에 참여, 현재 순수한 농촌의 전업 농가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에 농촌의 중·소 양돈인이나 전업 농가는 축산 정책이나 기업 축산에 얽매임 없이, 우리가 천직으로 알고 택한 양돈 사업에, 분에 넘치는 사업욕을 배제하고, 알찬 경영으로 생산 원가 절감, 모든 감축으로 국가의 축산 진흥 시책에 일익을 담당해야겠다.

84년 7월 20일에 양돈 회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양돈협회 용인군 지부장의 중임을 맡기까지 지난 12년이란 세월중에서도 84년도는 더욱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다.

85년은 양돈인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본 용인군 지부가 더욱 발전하는 뜻깊은 해가 되길 기원한다. □

축산진흥시책에 일익을 담당해야
분에 넘치는 사업욕을 배제하고